

2016년 10월 18일, 조천읍 신촌리 허재군씨 댁, 이현정 조사.

제보자1: 허재군(남, 1948년생, 조천읍 신촌리)

제보자2: 전옥순(여, 1953년생, 조천읍 신촌리)

[제보자1] 그 어느 두 부부가, 두 부부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. 요거는 내가 그, 절간에 갔다가 잠시 그, 설법을 헐 때 거, 좀, 좀, 거, 잠시 들은 얘긴데, 들은 얘긴데. 그, 두 부부가 이렇게 사는데, 하널에 해 박은 날은 이 남자가 집에 술을 먹곡 들어 와가지구, 마누라를 계속 때리는 거여, 마누라를, 마누라를. 그래가지구 허니깐, 어느 날 후루는 인제, 남편안티 그냥 뚜드려 맞아가지구, 맞아가지고 인제는 다리 이렇게 벌어가지고 맞아서 우는데, 이제, 권제 받으레 다니던 스님이 그 집 일 들른 거여, 딱 들런, 들리니까, 인제.

“시주 왔습네다.”

이렇게 목탁치고 저기 허니까, 인제, 거, 시주를 주면서, 그 부인이 이제 시주를 주면서, 인제, 스님헌테 허는 말이.

“스님, 나는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, 이렇게 허구헌 날 하늘이 해 박은 날은 남편헌티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 살아야 됩니까? 이거를 피헐 방법이 엇입네까?”

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더니, 그 스님이 허는 얘기가 (기침) 부름달이 터 오는 날, 부름날, 부름달 이렇게 터 올 때에 (기침) 마당에다가 명석을 깔아 놓고, 평풍 쳐 놓곡, 거, 집 비는 세 있잖여. 초집 비는 세. 이거 한 뭇을 이제, 거, 딱 세와 놓고, 거기다가 남편 올 때까지 계속 절을 하고 있으라 이거여.

[조사자] (웃음) 네.

[제보자1] 세, 세, 셋단에다가 그, 저, 절을 허고 있으라. 그래가지구 허니깐

“아, 그러면 무슨, 제이가 됩니까?”

“그거를 허면은 알 드리가 있을 것이다.”

이래가지구 스님이 인제 가 버리니깐 부름날이 기다려가지고 부름날 딱 되니까 부름달 터 올 무렵에, 마당에다가 이제 명석 깔아 놓고, 평풍 쳐 놓고, 거 셋

단을 갖다 놓고, 계속 거기다 절허는 거여. 절허는데 남편이 이제 저녁 무렵에, 거, 진탕 술 마셔 가지구, 비틀비틀거리면서 들어와서 보니, 기가 막히거든 이거, 이, 이 여자가 이거, 미쳐도 단단히 미청 해야지, 마당에다 명석 펴 놓고 평풍 쳐 놔서 셋단에다, 셋단 세워놔 가지고 셋단에다, 절 허는 놈을, 응? 이거, 미쳐 도 단단히 미친년이다. 그래가지고 그, 셋단으로 그냥, 복작 때린 거야 마누라를. 복작 때리난 셋단이 다 부서진 거 아니? 게, 다 부서지니깐, 인제 때릴 기구가 없으니까 그냥 방에 들어가 부린 거여.

방에 들어가가지구 해서 다음날부터는 술도 안 먹고, 마누라도 안 때리고, 이 거 희한한 일이거든? 그래가지고 인제, 이 부인이, 물어 물어 그, 인제, 그 스님 이 있던 그, 암자를 인제 찾아 간 거여. 찾아가가지구.

“스님이 헤 주신 대로 인제, 허니까 그 다음날부터는 그런 일이 없읍네다. 이게 원인이 뭡니까?” 해서 물어봤더니, “전생에, 전생에, 그 남편이 당신 에, 집에 소로, 소로 환생해 있었다 이거야. 그래서 소를 인제, 몰때 그냥 계속 걸어가는 소를 부인인 당신이 일 엇이 소를 훼초리로 계속 때렸다.”는 거여.

[조사자] 아, 전생에.

[제보자1] 응, 전생에. 계속 때려가지구 허니까, 그, 셋겁 수정이 매 숫자다 허는 거여. 그 거를 훈번에 이제 다 그 숫자를 그걸로 셋단으로 전부 부서질 때까지 맞았으니까, 그 빚을 그걸로 다 갚았다는.

[조사자] 그래서 안 때린 거구나?

[제보자1] 응.

[조사자] 전상이구나?

[제보자1] 전?

[조사자] 전상이주 뭐.

[제보자1] 응, 전, 전생에 그런 그, 죄를 그렇게 범해가지구, 계속 소를 그렇게 때렸다고 해가지구.

[조사자] 건 언제 들으셨마씨?

[제보자1] 아마, 으고는 훈 내가 저디, 구도헌 지가, 훈 열대, 열대섯 살 정도 된 때.

[제보자2] 오십년도 넘었지.

[제보자1] 응.

[조사자] 오십년 넘었마씨?

[제보자1] 응, 열대섯 살 정도.

[조사자] 절에?

[제보자1] 응?

[조사자] 어디, 이거 아까 절에, 절에서 설법할 때.

[조사자] 어디 절마씨?

[제보자2] 저.

[제보자1] 미륵부처님이렌 헨 절이 있어.

[조사자] 아, 기마씨? 거기서 설법하실 때, 아 설법할 때, 스님헌테 들으신 얘기지예? 스님이 설법할 때?

[제보자1] 아니.

[조사자] 본인이?

[제보자1] 스님이 아니고, 우리 그, 미륵절에는 스님은 없고, 거기에서 좀, 그, 직위가 좀 높으신 분, 또, 그, 이런, 그, 저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분, 그런 때 그, 저, 설법은 아니고, 거, 설법을 할 때는 그, 저기 앞에서 다 불 켜져 있는 상태서 허는다. 걸 엇엔 다음에, 이제, 맞아가지고, 이제.

[조사자] 그냥 도란도란 얘기하는 식으로.

[제보자1] 응, 응. 할 때, 응. 그래서, 전생에 이제 지금 현재, 이제, 우리가 이제, 살아가는 거, 인과응보에 대해서 이제, 얘기를 허는데, 예를 들어서 이제, 어, 술을 좋 아하는 사름이며는, 이제, 저 세상에 가면은 물고기가 되가지고 실컷 들여마시고,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인저….

[조사자] 거든 거기서 설법하시는 그 스님은 제주도 사람마씨?

[제보자1] 어, 제주도 사름.

[조사자] 아, 제주 사람.

[제보자1] 제주 사름.

- 핵심어 : 두 부부, 스님, 시주, 전생, 셋단, 절, 남편, 미륵부처, 인과응보, 설법